

2010 년 가을 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함

메시지 5

복음서에서

(5)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가 주어지신 분,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중심, 돌는 해, 사마리아인

성경: 마 28:18-20, 눅 1:78-79, 10:25-37

I. 천국에 관한 책인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 주 예수님은 그분 자신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가 주어지신 분으로 제시 하신다—28:18-20.

- A. 주님은 그분의 신성 안에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위가 있으셨다. 그러나 그분의 인성 안에서 하늘에 속한 왕국의 왕이 되시기 위해, 사람의 아들이신 그분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가 부활하신 후에 주어져야 했다— 6-7 절, 10, 18.
- B. 주님께 모든 권위가 주어진 것은 믿는 이들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들을 삼일 하나님 안으로 침례를 주기 위한 것이다— 19-20 절.
 - 1. 그분께 모든 권위가 주어졌기 때문에 하늘의 왕은 민족을 제자로 삼도록 그분의 제자들을 보내셨다. 그들은 그분의 권위를 가지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 간다— 19 절.
 - 2.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은 오늘날까지도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왕국, 곧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이방인들을 왕국 백성으로 삼는 것이다— 롬 14:17, 계 1:6, 5:10.
 - 3. 어떤 사람들을 제자화 하는 것은 그들을 천국의 진정한 국민이 되게 하는 것이다— 마 4:17, 5:3.
- C. 교회 생활 안에서와 사역 안에서 우리 가운데 있는 권위의 근거는 부활이다— 고후 1:9, 민 17:1-10.
 - 1.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권위를 준다— 요 11:25, 고후 1:9
 - 2. 부활이 있는 곳에 권위가 있다. 권위는 부활에 달려 있고 타고난 생명에 달려 있지 않기 때문이다— 3:5-6, 10:8, 13:10

II. 마태복음에 제시된 그리스도는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중심이시다—28:19, 12:28, 16:16-19, 17:2, 5.

- A. 1 장에서 성령과 아들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 예수님을 산출하시기 위하여 함께 계시는데, 이 사람 예수님은 여호와 구원자시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서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시다— 18, 21, 23.
- B. 3 장에서 아들은 열린 하늘 아래 침례의 물속에서 계셨고, 그 영은 비둘기 같이 아들 위에 내려오셨고, 아버지는 하늘에서 아들에게 말씀하신 그림이 있다 — 16-17.
- C. 아버지는 아들 안에서 표현되시고, 아버지의 표현이신 아들은 그 영으로 실재화 된다— 요 1:18, 14:10-11, 16-20.

- D.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에 관하여 우리는 근원, 표현, 실재화라는 세 가지 중요한 말을 사용할 수 있다. 아버지는 근원이시고 아들은 근원이신 아버지의 표현이며 그 영은 아버지의 표현인 아들의 실재화이다.
- E. 그리스도께서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중심이신 것은 제자들이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줌으로 그들을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 안으로 침례를 주기 위함이다. 사람들을 주 예수님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는 것은 삼일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는 것과 동일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시고 삼일 하나님의 중심이시기 때문이다—마 28:19, 행 8:16, 19:5, 롬 6:3, 갈 3:27.

III. 우리는 그리스도를 돕는 해로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눅 1:78-79.

- A. 우리의 인간 구주, 사람-구주 그리스도께서 땅에서 부터 오신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오셨다는 것은 그분의 근원이 하늘이라는 것을 가리킨다. 그분은 돕는 해로서 하늘에서 오셨다— 78 절.
- B. 구주 예수님은 어두운 시대에 돕는 해이셨다— 79 절.
 - 1. 돕는 해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 79 절.
 - 2.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그분은 빛으로 충만한 분이셔야 했다—요 1:4-5.
- C.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발을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다. 그리스도의 빛 비추심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평안의 생활이다—눅 1:79.

IV.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상처 받은 사람을 구원하는 자비로운 사마리아인으로 묘사 되신다—10:25-37.

- A. 이 사마리아인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시며 죄인을 구원하시는 사역 여행 중에 계시는 사람-구주를 상징한다—19:10.
- B. 사마리아인은 타락하고 율법에 매 맞은 죄인을 자비로 돌보셨다—10:30-33.
- C. 선한 사마리아인이 죽어가는 사람을 돌본 모든 방면은 사람-구주께서 신성을 지닌 인성 안에서 긍휼로 부드럽고 너그럽게 돌보시는 것을 묘사한다— 34-35 절.
 - 1. 사람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은 것은 그에게 성령과 신성한 생명을 주심을 상징한다— 34 절.
 - a. 그 영은 진정시키는 기름이고 신성한 생명은 그 영을 통해 우리를 기쁘게 하는 요소인 포도주이다—시 104:15, 마 9:17, 히 1:9.
 - b. 사람-구주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그분은 그분의 영과 그분의 신성한 생명을 우리의 상처에 부으셨다. 구원 받은 때 부터 우리는 성령과 신성한 생명의 치료를 체험한다—눅 10:34 상.
 - 2.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여관에 데려간 것은 그분께서 그 사람을 교회에 데려가고 교회를 통해서 돌보시는 것을 가리킨다. 오늘날 지방 교회는 사람-구주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여관’이다— 34 하-35 절, 고전 1:2, 7:17.